

3주년 심포지엄

국가균형발전 3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06. 5.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 례

I 정책 추진 이전의 모습

II 비전과 정책

III 추진현황과 성과

IV 향후 추진과제와 미래상

I 정책 추진 이전의 모습



1. 요소투입형 불균형 성장전략의 성과와 한계

「요소투입형」 성장

- 90년대 이후 성장을 하락 추세
- 국민소득 1만불대 장기정체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변화]

「불균형」 성장

- 극심한 수도권 일극 집중
- 지역경제의 낙후 심화



[수도권 집중현황]

2.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접근

요소 투입형 성장

수도권 일극중심 성장

물질·개발주의적 성장



혁신주도형·창조형 발전

다핵경제권 조성

삶의 질 향상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소득증가·건강·행복 추구



Ⅱ 비전과 정책

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다핵형 · 창조형 선진국가 건설

모든 지역이 혁신역량과 삶의 질 구비

균형발전정책의 개념확대 및 체계화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 정책

- 살기 좋은 도시와 농촌
- 수도권외 질적 발전
- 도농상생형 국토공간 조성





Ⅲ 추진현황과 성과

1. 종합 추진실적 및 성과[1]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기틀 마련

기 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03. 4]
-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04. 1 ~ 05. 27(월) 14100]



제 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3. 12]



정 책

- 국가균형발전 대구 구상 [03. 6]
→ 3대원칙 7대 과제
- 신국토구상[04. 1]
→ 5대전략 7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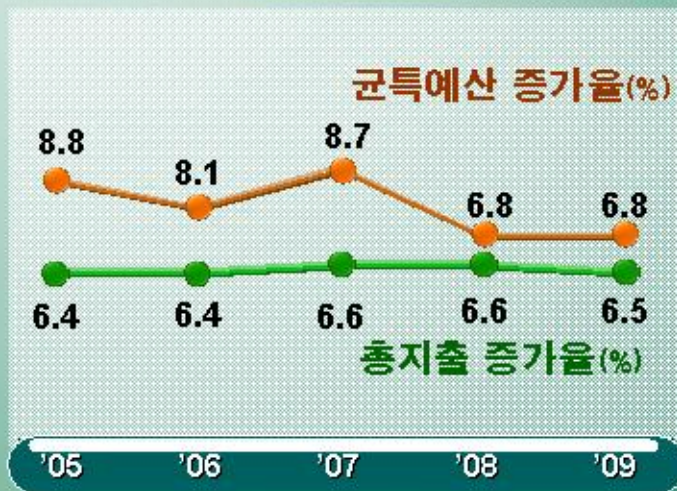


1. 종합 추진실적 및 성과[2]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04.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04.11]

균특회계 예산의 지속 확대



-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
- 중앙정부 역할 전환 : 예산배분 → 컨설팅

-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시책
추진의 전기 마련

- 지자체별 예산총액한도[실링]
지정 및 자율편성으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및 업무부담 경감

균특회계에 대한 지방공무원 설문조사 의견



1. 종합 추진실적 및 성과(3)

균형발전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균형발전 성과 점차 가시화



지방의 재정력 지수도 증가추세 지속



2. 현시저장 분야와 비특수저장

2. 혁신정책 분야의 실적[2]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

-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04년 113개 대학, 112개 사업단
총 2,200억원 지원

'06년 109개 대학, 122개 사업단
총 2,600억원 지원

※ 교수 6천여명, 학생 19만여명 참여

지방 R&D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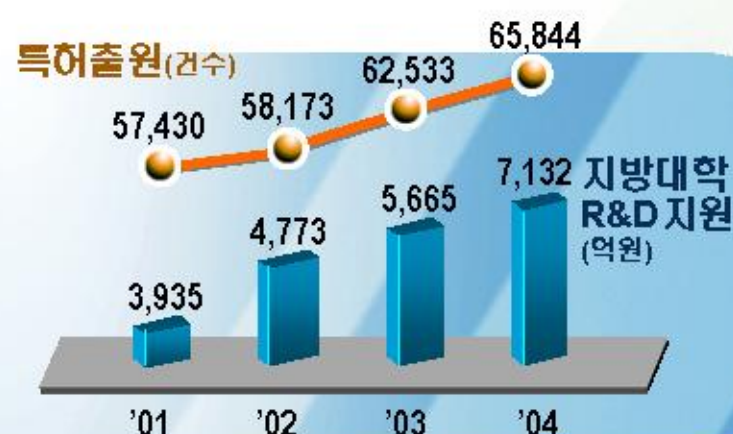
- 지방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 정부R&D예산의 지방투자 비율 확대



지방대학 석·박사 배출수(명)



특허출원(건수)



3. 균형정책 분야의 실적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기회 부여

신활력사업

-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
- 도농교류 활성화 : 5도2촌, 5촌2도
 - 체험마을, 은퇴자마을 조성
 - 장소마케팅 활성화



- 70개 시·군에 9천억원 투자 (3년간)
 - 농촌주민의 소득기반 다양화
 - 도시민의 건강과 활력 증진

지역특화발전특구

-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의 특성화 발전
- 지역투자촉진 : 48개 지역 1조 6천억원

향토자원진흥
특구 22개소



의료·건강
특구 등 11개소



관광·레저
특구 8개소



교육관련
특구 7개소



4. 산업정책 분야의 실적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전략산업 육성

- 시·도별로 4개 전략산업 선정
 - IT, BT, 신소재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 지역 산업혁신기반 강화
 - TP, RIC, RRC 등 기능활성화 및 연계 촉진

혁신클러스터 육성

- 대덕연구개발특구
 - 기술의 상업화·사업화에 역점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 7개 시범단지 운영
 - 경영컨설팅, 공동기술 개발, 맞춤형 교육, 장비지원 등
 - 49개 미니클러스터 가동

5. 공간정책 분야의 실적[1]

국토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극집중의 국토구조를 다핵경제권 구조로 재편

행정중심복합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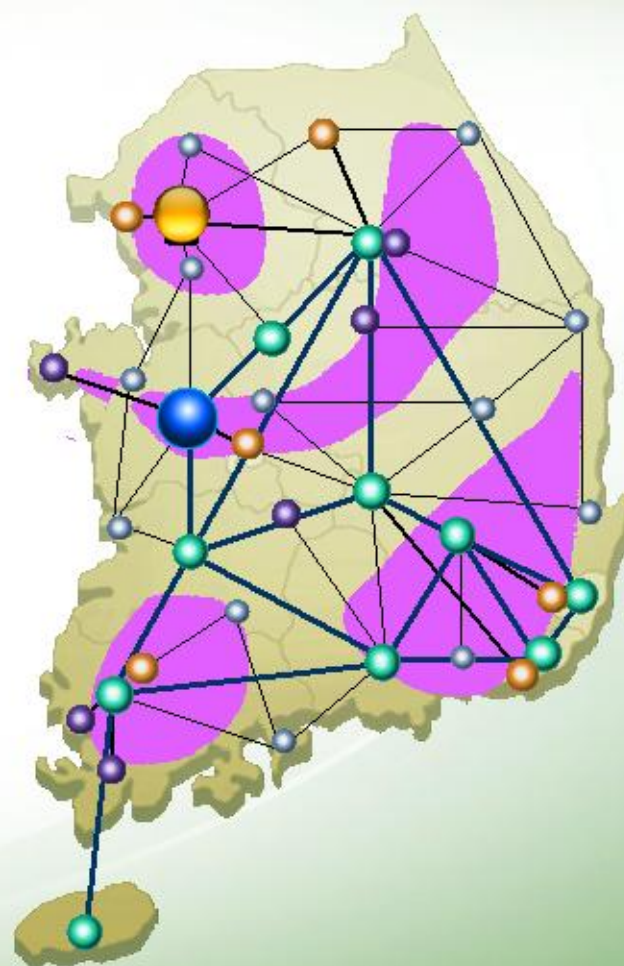
- 다극분산 국토구조로 전환하는 초석
- 우리나라 첨단기술과 문화의 전시장

혁신도시(10개소)

- 공공기관과 산·학·연의 협력으로 지역혁신 선도
- 사이언스파크, 첨단산업도시, 전원도시의 복합도시로 발전

기업도시(6개소)

- 관광레저, 산업교역 등 분야의 투자촉진
- 지역특성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17조원 신규투자)



5. 공간정책 분야의 실적[2]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개요

- 전국 10개 시·도에 혁신도시 건설

- 이전대상

공공기관 175개

직원수 3만 2천명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배치

- 12개 산업특화기능군
- 9개 유관기능군



혁신도시 건설 효과

-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기업 등과 협력
- 지방의 우수인력 확보

- 산업클러스터 형성 촉진

- 민간기업 지방이전 및 지역내 창업촉진
-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13만3천개

생산유발 효과 9조원(연간)

부가가치유발 효과 4조원(연간)

5. 공간정책 분야의 실적(3) : 기업도시

낙후지역 및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큰 지역에 기업주도로 도시건설
특정산업과 연구·교육기능을 집적시켜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

유형과 투자규모

산업교역형

1개소 2조 7천억원

6개지역

17조
5천 7백억원

지식기반형

2개소 4천 7백억원

관광 레저형

3개소 14조 4천억원



6. 질적발전 정책의 성과[1]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비전
목표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살기 좋은 지역’ 창조

–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지역 만들기 –

5 대
과제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 제고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추진
방식

- 지역사회와 주민 주도 : 지역의 자율기획과 자기책임
- 지역사회 – 지자체 – 중앙정부간 협력적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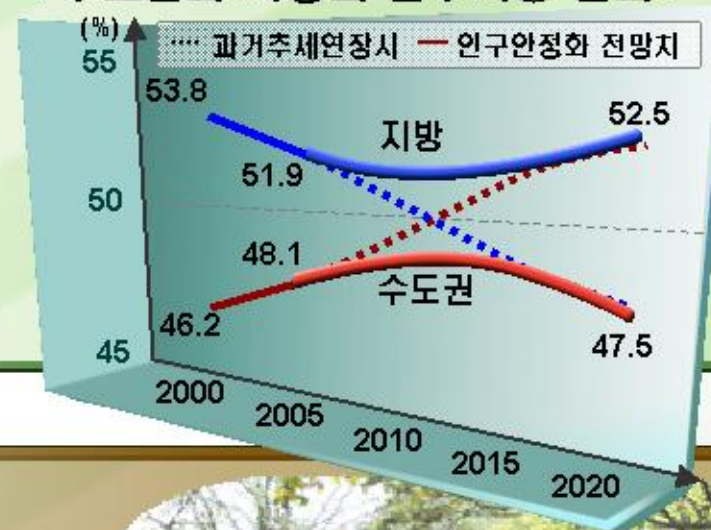
6. 질적발전 정책의 성과[2] : 수도권외의 질적 발전

인구안정화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세계적 대도시권으로 도약

인구 안정화

- 계획적 관리체제의 도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관리
- 2020년 수도권 인구를 47.5% 수준으로 유지

<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중 변화 >



삶의 질 향상

- 공원, 숲 등 녹지를 최대한 확보
- 환경오염 저감
- 경관·미관 개선
- 역사·문화의 복원 및 확충





IV 향후 추진과제와 미래상

1. 향후 추진 과제

➡ '05년 이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본격 실행단계로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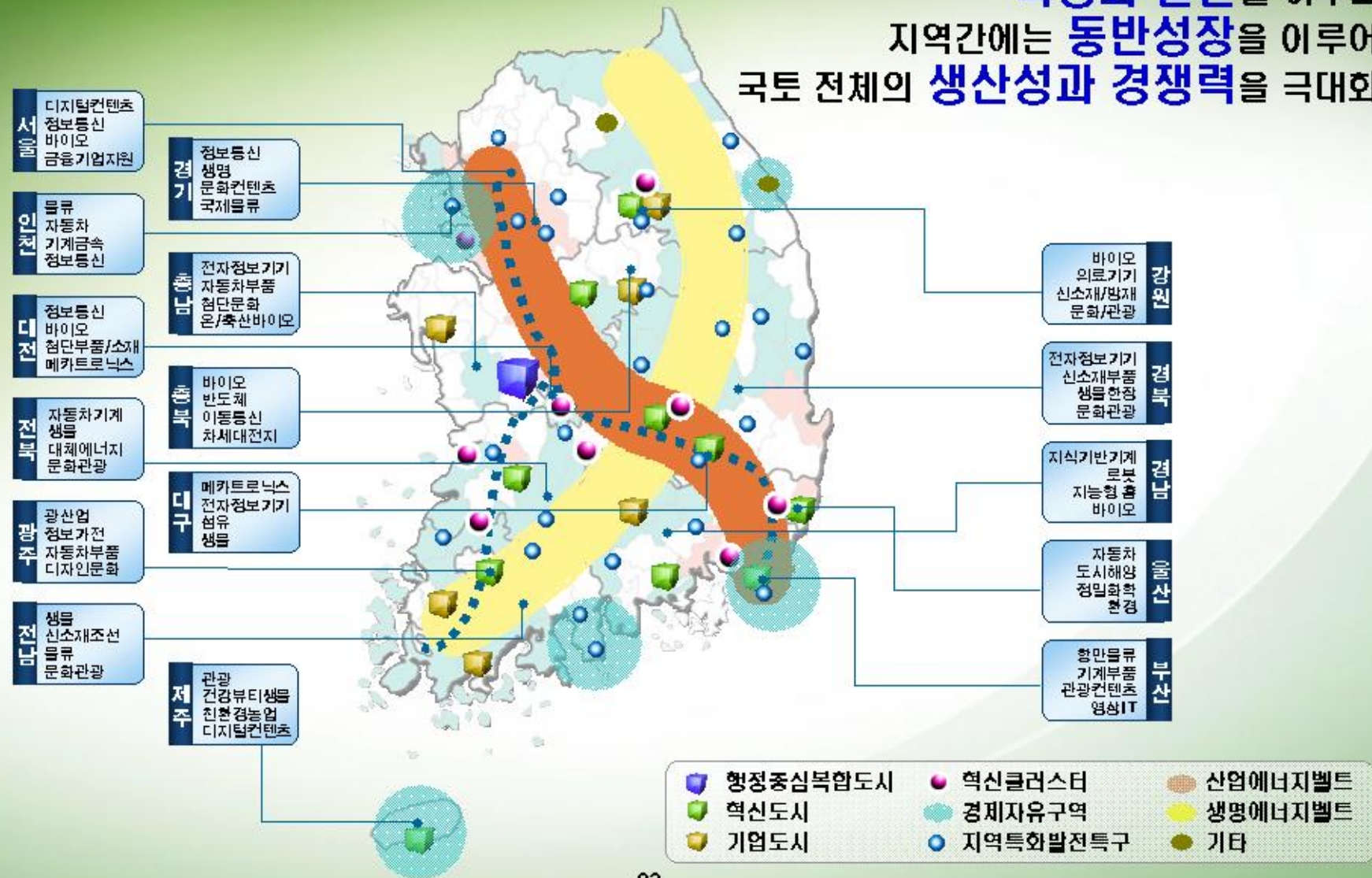


➡ 질적발전정책을 포함한 5대 핵심선도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확산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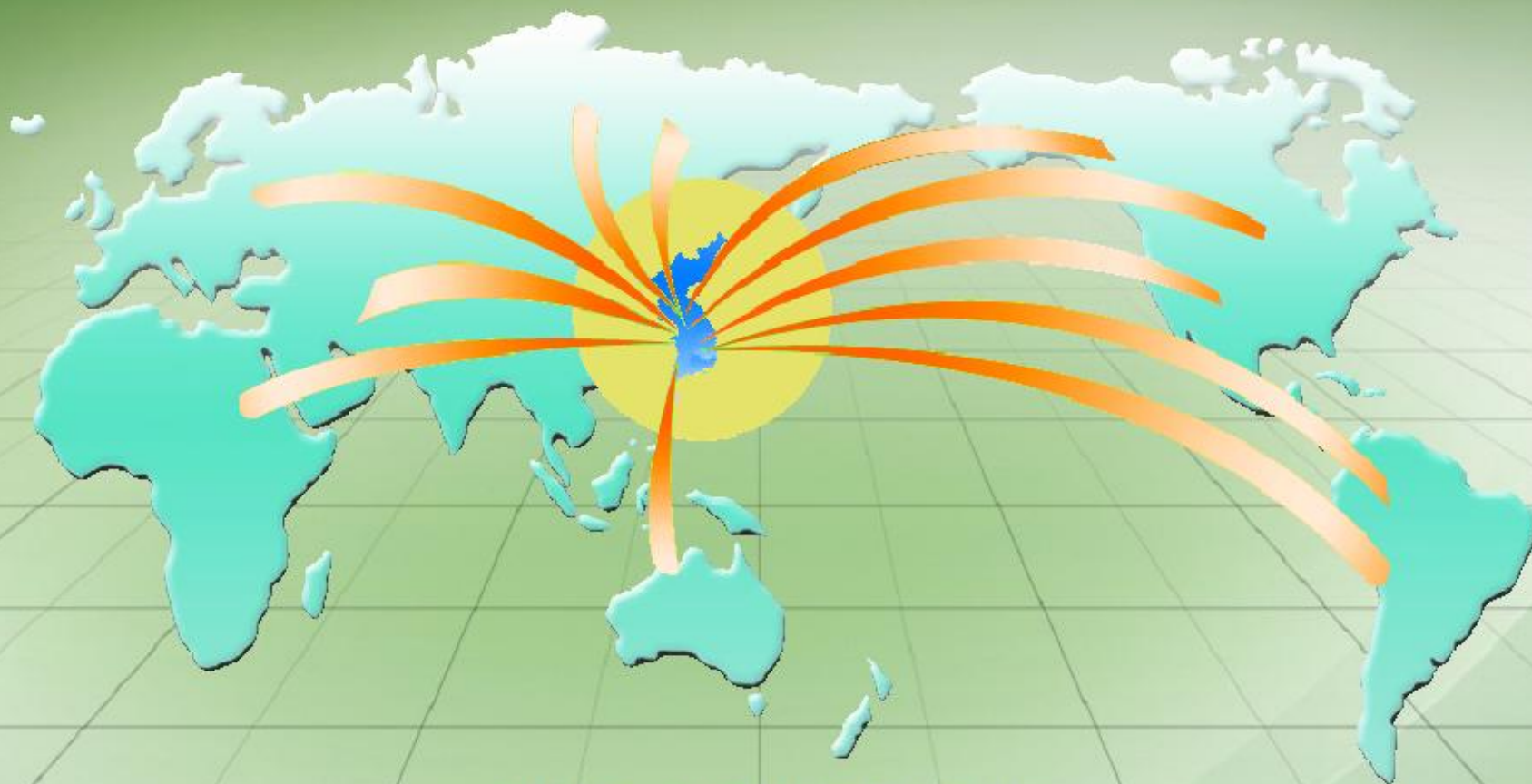


2. 균형발전사회의 대내비전

각 지역은 자신의 비교우위에 따라
특성화 발전을 이루고
 지역간에는 **동반성장**을 이루어
 국토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극대화



3. 균형발전사회의 대외비전



정부와 지역이 힘을 합쳐
동북아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감사합니다

